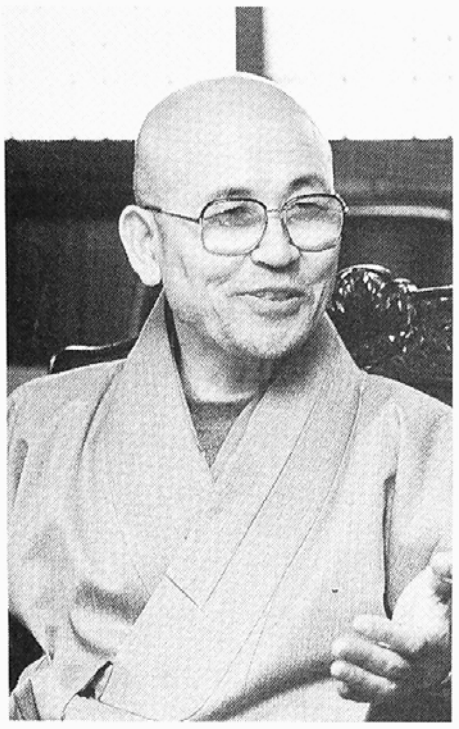
수요 인터뷰

대구·청주지역 불교방송 지방국이 내년 초파일을 목표로 개국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불자들의 신행을 넓혀갈 지방국 설립 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된 설조스님(불국사 주지)과 월성스님(법주사 주지)은 서울불교방송국의 축적된 노하우와 지역불자들의 단합된 의지를 모아 개국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불교방송 추진위원장 **설 조 스님**

"범종단 화합에 역점 준비 만전 기할터"

—먼저 추진위원장에 선임되신것을 축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불교방송 허가와 함께 추진작업이 미진했던 대구 경북지역도 지난 달 18일부터 어느정도 추진작업이 본격화되는 추세입니다. 어려운 일을 맡아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대구 불교방송이 무리없이 개국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불자들의 염원이었던 대구 불교방송이 지난 5월19일 정부로 부터 인가를 받아 내년 전파를 발사하게 됐는데요. 개국을 준비하는 대구 경북지역 불자들의 기대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특정 종교국가도 아닌데 매체의 편파적인 허가로 균등한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문명의 이기를 통한 포교를 하지못한 것을 정부당국에 책임만 전가해 왔었습니다.

이지역 불자들은 모처럼 얻은 기회를 잘살려 교단의 전체구성원들이 합심하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주민들에게 훈습될 수 있다는 큰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기초적인 추진업무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본사·태고 진각종등 20억원 마련계획 세워

▲지난 1일 회의에서 사무실을 마련하고 22일내로 현판식도 갖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달말이면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불교방송 개국추진 과정에서 부산 광주 등은 상당히 어려움과 아픔을 감수하여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는 상황인데요. 대구 경북지역은 어떤 방식으로 지역불교계를 연대하여 이끌어나갈 계획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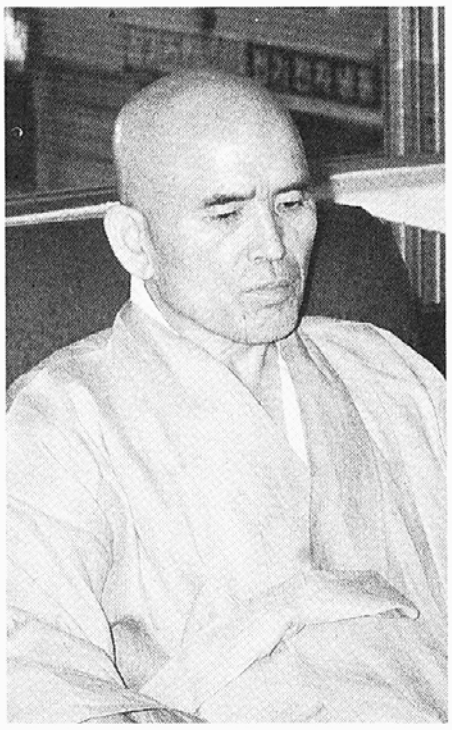
▲이 지역 5개본사가 주축이 되어 태고종, 진각종 등 이웃종단과도 협의하여 불자 모두의 방송이 되도록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최대한 화합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해야죠.

—지방국 개국을 위해 소요되는 20억원 마련이 급선무입니다만 추진위에서는 구체적인 재원마련 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요.

▲지방국 설립에서 이 부분이 가장 관건입니다. 우선 동화사 은해사 직지사 고운사 불국사에서 10억을 충당하고 태고종 진각종을 위시한 각 종단과 불자들의 참여로 나머지를 충당할 방침입니다.

—지역신행을 이끌고 나갈 음성포교매체의 등장은 지역사회 종교판세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이는데 대구불교방송을 어떤 방송으로 모습을 갖출지 궁금합니다.

▲불교의 도시 대구에 불교방송이 개국되면 불자에게도 신행을 돈독히 하고 일반인들에게는 부처님 자비를 접하는 건전하고 즐거운 방송이 되도록 힘을 모아가겠습니다.



청주불교방송 추진위원장 **월 성 스님**

"불자들 작은정성이 출범 주춧돌 됩니다"

—청주 충북지역은 범종단적 승가의 화합과 사부대중의 활동이 활발한 곳인데요. 앞으로 지역국 개국준비를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입니까.

▲충북지역은 오랜기간 불심이 잘 보존된 저력있는 지역입니다. 재가신도의 활동도 잘 드러내지는 않지만 활발한 편입니다. 충북지역의 유일한 본사인 법주사는 이점에 유의하여 앞으로도 태고종 천태종 등 각 종단과 협의하여 불교방송 개국을 준비해 나갈 것 입니다.

—현재의 청주불교방송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청주지역은 5년간 추진위가 작업을 계속해온 지역입니다. 현재 가경동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있고 채훈 관집행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의 상임위원과 1명의 감사가 선임되어 개국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본사와 관계정립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개국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가장 급선무가 자금마련 입니다만 자원마련 구도는 어떻게 짜여지고 있습니까.

▲글쎄요. 현재 방송국 개국에 따르는 재원은 기계발주의 선택과 부지 매입과 임대에 따라 소요금액에 많은 차이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법주사가 주도적으로 출자해야지요. 또 태고종 천태종 등 각 종단과 재가불자의 참여가 전체재원의 큰 물을 이루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불자들 한분 한분의 작은 정성도 소중히 받아들여 청주불교방송국을 개국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스님께서는 청주불교방송을 부처님의 음성인 해조음과 같다고 말씀하신적이 있으신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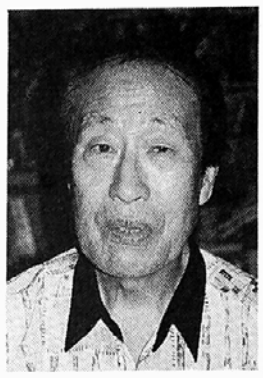
▲청주지역이 갖는 장점을 살려 소수가 느낄 수 있는 친근감을 바탕으로 살아있는 충북의 소리 충북불교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첫해 자체제작비율은 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자체제작비율을 늘려 지역 현실에 맞는 여러가지 편성형태로 지역불자의 질적향상과 지역불교발전에 다양한 증폭작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5년준비 경험 최대한 활용 지역 향상 주도할 매체로

김원우 기자

나의 수행일기

정 달 영 〈국악인〉



목탁대신 가야금 뜯으며 백일기도

산조·줄풍류 천번 타고나니 부처님 웃음이…

인생은 한 바탕의 산조(散調)다.

누구나 그렇듯 지나 온 삶을 되돌아 보면 깊은 회한에 잠기기도 하고 아름다운 추억에 미소를 머금기도 한다. 74년의 나이를 살아 오며 나는 무엇을 했던가. 돌이켜 보면 나도 그저 평범한 한 인간의 삶을 살아 왔을 뿐이다.

한 바탕의 산조와 같은 삶. 나는 그렇게 산조풍의 삶을 이어 온 것 같다. 가야금 만드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악기를 다루게 됐고 남자 가야금병창을 외롭게 지켜 오는 인연을 갖게도 됐다.

그러니까 진양조의 삶이라고 할 어린시절에 나는 해금이니 양금과 같은 줄풍류를 배웠고 중모리가락에 해당될 청년시절에 본격적으로 가야금 병창을 배우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가야금 병창의 원조는 한숙구선생인데 나는 한 선생의 직계제자인 정남옥선생으로부터 배웠다. 정남옥선생은 나의 숙부님이다.

가야금 병창은 여성들의 것으로 인식돼 왔다. 그래서 나는 유일한 남자 병창가로 국악계를 외롭게 살아 왔지만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 다만 내 스스로 나의 경지를 이루고자 하는 욕망을 품고 악기를 보듬으며 살았을 뿐이다.

그렇게 살다보니 어느새 50대의 나이를 맞고 있었다. 지천명(知天命)의 나이를 맞아 나는 고민했다. 그 긴 시간을 두고 내 스스로 흡족해 할 만한 음악을 타보지 못했던 것이 못내 괴로웠다. 지천명이 아니라도 지음(知音)의 귀와 마음은 갖춰야 할 것이란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격렬한 듯 하면서 질서가 있고 산만한 듯 하면서 차분한 맛이 있다는 휘몰이 장단의 나이를 맞아 스스로에게 싸움을 걸었다. 그 싸움은 다름아닌 백일기도였다.

마음을 굳힌 나는 도봉산 약수암으로 찾아갔다. 전부터 만나 오던 스님을 찾아 방을 하나 얻었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백일기도를 시작했다. 나의 백일기도는 좀 다른 방법의 기도였다.

아침을 먹고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가야금을 안고 법당에 들어간다.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좌정한 다음 가야금을 타며 소리를 하는 것이다. 줄풍류의 곡들, 명창, 산조를 주욱 훑어 타고 나면 이마에 땀이 흐록 있다. 다시 '관세음보살'을 정근하며 목탁대신 가야금의 현을 뜯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기도방법이었는데 모든 레파토리를 하루에 10번씩 했다. 13시간 가량이 걸렸다. 가야금 1천독을 발원했던 나의 마음은 첫날부터 흔들렸다. 나름대로 다부지게 생각했던 기도였지만 막상 시작을 하고보니 백일을 다 채울 수 있을지 두렵기까지 했다.

'에이, 백일이 안되면 하는 날까지만 해보지 뭐!' '아니야. 백일을 못 채우면 내 50평생이 물거품보다 허무한 것이야' '이번 기회에 독을 트고 손을 풀어야지' 이런저런 다짐과 좌절들이 교차되는 가운데 사흘이 지나고 1주일이 지났다.

처음 악기를 배우던 어린시절의 고향과 아버지 숙부님이 생각나고 아내와 아이들이 생각났다. 사흘이 지나면서 손가락이 찢어지기도 했다. 천조각을 동여매고 줄을 튕기니 소리가 제대로 날수도 없었지만 그래도 줄풍류를 타고 소리를 내질렀다.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며 절을 하기도 했고 다시 가야금을 끌어 안고 '죽장망혜…' 가락을 읊어대기도 했다.

어둑어둑한 법당에 예불 모시러 스님들이 올라 올 때쯤이면 나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다. 그래도 스님들과 함께 예불을 했다. 그러던 어느날 나는 반야심경을 병창으로 만들어야 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20년이 더 지나서 불교방송에 의해 비로소 반야심경 가야금 병창을 만들 수 있었다. 때가 되어야 일도 된다더니 말이다.

아무튼 나는 백일간의 기도를 마쳤다. 1천번이 넘도록 가야금 산조와 병창과 줄풍류들을 타고 나니 지천명의 나이에 자신이 생겼다. 마지막 회향날의 기쁨을 나는 잊을 수 없다. 아무도 없는 법당안이었지만 불보살님과 아라한과 제석님들이 나의 관객이었다. 그 고급의 관객들 앞에서 나는 두시간이 넘도록 회향연주를 했던 것이다. 연주를 하며 올려다 본 부처님이 빙긋 웃고 계신다고 느껴졌을 때 나는 흘러 내리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었다.

불교 성지 순례

■여행조건 ●호텔:특급 및 1급, 2인 1실 기준 ●전일정 식사제공 ●최소 출발인원:10인 ●전문 가이드 동행 ●여행자 보험

실크로드 대장정 23일
—중국 불교유적지와 간다라 불교유적—
· 출 발 : 7월 24일, 8월 28일
· 동참금 : 295만원
· 일정 : 서울—북경—서안—난주—가욕관—돈황—투르판—우룸치—카슈가르—쿤자랍고개—훈자—길기트—스왓—페샤와르—탁실라—이슬라마바드—라호르—방콕—서울

실크로드 불교유적지 11일
· 출 발 : 7월 21일, 8월 25일
· 동참금 : 188만원
· 일정 : 서울—상해—소주—항주—서안—난주(병령사 석굴)—돈황(천불동)—투르판—우룸치—북경—서울

티벳·네팔 9일
· 출 발 : 7월 23일, 8월 27일
· 동참금 : 210만원
· 일정 : 서울—상해—성도—라사—쟝께—시가체—라사—카트만두—방콕—서울

스리랑카 캔디 불치제 6일
—스리랑카 최대의 불교 축제 캔디 페라헤라·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 출 발 : 8월 4일
· 동참금 : 118만원
· 일정 : 서울—콜롬보—아누라다푸라—시기리야—폴론나루와—담불라—캔디(불치사)—콜롬보—서울

중국불교유적지 13일
· 출 발 : 8월 29일, 9월 19일
· 동참금 : 195만원
· 일정 : 서울—상해—계림—서안—낙양(용문석굴)—숭산 소림사—정주—태원—오대산(문수보살도량)—대동(운강석굴)—북경—서울

백두산 연길 북경 5일
· 출 발 : 7월 15일, 7월 29일
· 동참금 : 100만원
· 일정 : 서울—심양—연길—백두산—북경—서울

인도네시아 5일
—세계 최대의 불교기념비 보로부두르 사원—
· 출 발 : 7월 23일, 8월 27일
· 동참금 : 95만원

대 만 5일
· 출 발 : 8월 20일, 9월 20일
· 동참금 : 65만원

HYECHO ADVENTURE TOURS, LTD. 혜초여행사
국외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544-1533(代)